

[고려대] 포스코 판결 5주년 세미나

[고려대]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고려대학교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1월 7일(월) 오후 3시 대항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1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 행사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고려대 ICR센터와 한국연구재단 Social Science Korea 「시장경제와 법질서」 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2007년 11월 22일 선고된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 경제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중요판결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고된 지 만 5년이 된 포스코 판결의 의미와 발전방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됐다.

ICR센터의 이번 세미나는 포스코 판결 당시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역들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대법원장이며 포스코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이용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원 판결 재조명의 의의에 대해 기초연설을 할 예정이고, 포스코 판결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지형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강평을 하여 세미나의 전문성과 권위를 더할 것이다.

이 날 사회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포스코 판결 당시 주심 재판연구관이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포스코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포스코 판결 당시 재판연구관이었던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판사(부장판사)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이 맡는다.

윤지애/인터넷 경향신문 인턴 기자
(@YeSS_twit/웹場 baram.khan.co.kr)

[꿀값어워드] 우리 사회 최고의 꿀값을 찾습니다.

12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꼴값을 댄 인물 한 명을 추천해 주세요.

결과는 경향닷컴 내 웹장(baram.khan.co.kr)에 게재됩니다.

- YeSS(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꼴값어워드 선정위원회 "꼴값이 씨가 마르는 세상을 꿈꾸며"

아래 링크를 눌러,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이달의 꼴값!! 투표하기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3-01-11 09:27:23 | 수정 : 2013-01-11 09:27:24
